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수저계급론의 사회적 담론과 진로교육의 역할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고찰
국민대통합 위원회 화합과 상생 포럼

이지연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년 9월 9일

수저계급론의 사회적 담론과 진로교육의 역할

I. 문제인식

II. 기회불평등 인식 현황 :
기회불평등 인식조사, 2016년 중심으로

III. 진로교육의 역할과 향후 방향

문제인식

첫째

I. 문제인식 : 수저계급론 및 청년실업

❍ 수저론(수저계급론)

-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자신이 속한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
- **수저로 출신·성장환경을 빗댄 서양속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nth)' 에서 비롯됨**

✓금수저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존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자녀

✓흙수저 :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자녀

❍ 부의 대물림 현상 확인

-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신분 상승(계층간 이동)을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자괴감 열패감 팽배
- 청년세대는 '부모가 최고의 자산'이라며 '세습 자본주의'를 기정사실로 인정
- 한국가계의 자산 형성에서 상속과 증여가 기여한 비중이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로 급증(김낙년,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소 2015)

❍ N포 세대의 등장

-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불평등이 대물림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구조라는 인식 팽배
-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집 ·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그리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 등장

❍ 청년실업 비상사태

- 실업자는 20~24세(1만 6천명, 10.0%), 25~29세(1만 1천명, 5.3%)으로 증가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상승(2016. 07월 기준)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
- 7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32만명씩 사회로 배출 진행되는 중

❍ 일자리 미스매치

- 높은 실업률 속 중소기업 현장은 인력 부족 문제 –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
- 청년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일자리, 임금, 노동 환경의 제도적 격차로 대기업 희망
  -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
  - ✓ 현재 한국의 고용구조는 중소기업이 총 고용의 85%, 대기업이 15%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

❍ 수저 계급론과 청년실업과의 관계

- **청년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면 그 수렁속에서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
- **청년들은 취업 준비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
  - ✓ 중소기업 정규직의 대기업 정규직 전환비율 6.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대기업 정규직 전환비율 2.8%

- **실업률과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 증가**
  - ✓ **흙수저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포자기**

-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긴 대한민국**
  - ✓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흙수저를 벗어날 수 **없는 '원초적 불평등'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 헬(Hell)조선이란 유행어 탄생

▪ **지옥을 뜻하는 '헬(Hell)' + '조선'이 결합된 신조어**

✓ 사회에 대한 분노와 노력해도 안된다는 절망감, 무기력이 녹아있는 단어

✓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주로 청년층, 그 중에서도 **'흙수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용**

✓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비하하고 낙심하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 일의 소중함, 가치가 훼손되고 건강한 Work value, Work ethic 이 부재한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의 팽배

기회불평등 인식 현황 :
기회불평등 인식 조사, 2016년 중심으로

둘째

❍ 동그라미재단 –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 '16년 동그라미재단은 3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의 현황과 인식"조사

✓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기회불평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는 후속연구 실시

자료	▪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과 4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 제1차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
대상	▪ 모집단 : 전국의 만16세 이상, 74세 미만 인구 ▪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할당표집을 통해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고등학생 502명과 19세 이상 74세 미만의 성인 3,018명을 대상**
표본구성	▪ 한국 리서치 MS패널을 이용하여 조사 ▪ 전 국민을 지역, 성, 연령, 직업과 소득분포를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33만 여명의 명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고등학생 500명과 성인3,000명이 표집
조사방법	▪ **컴퓨터 지원 웹 인터뷰(Computer Aided Web Interview, CAWI)방법**을 이용 (CAWI는 E-mail과 Web 조사방법을 이용한 조사) ▪ 60세 이상의 표본 115명을 대상으로는 면접조사가 추가적 진행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연구

- 고등학생의 교육관련 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 파악, 가족배경 및 지역별 차이 설명
- 응답자 : 고등학생 연령층 500명 (가중치를 부여한 응답자규모)

성별	▪ 남성 52.1% ▪ 여성 47.9%
학교유형	▪ 일반계 고등학생 77.1% ▪ 비일반고(특목고, 예체능계열학교 등) 22.9%
지역별	▪ 서울 17.3% ▪ 인천,경기도 31.0% ▪ 영남권 15.6% ▪ 기타지역(강원, 충청, 호남 등) 26.1%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교육경험

▪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평가

구분		기초학력부족 학생보충교육실시	학교교육 시설이 좋음	다양한 예체능활동 기회제공	교사와 학생의관계가 좋음	학생고민상담 실시	진로선택에 도움	6개 문항 합계 점수
전체		3.15	3.29	3.19	3.06	3.63	3.61	20.54
성	- 남성	3.23	3.34	3.18	3.66	3.66	3.61	20.67
	- 여성	3.06	3.23	3.21	3.67	3.61	3.62	20.41
지역	- 서울	3.35	3.57	3.42	3.80	3.67	3.71	21.52
	- 인천, 경기	3.14	3.27	3.14	3.64	3.64	3.58	20.59
	- 영남권	3.19	3.26	3.22	3.73	3.68	3.63	20.41
	- 기타 지역	2.98	3.14	3.08	3.54	3.55	3.58	19.99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55	3.62	3.43	3.98	3.95	3.95	22.48
	- 중간층	3.11	3.28	3.28	3.65	3.66	3.61	20.60
	- 하류층	3.06	3.19	3.01	3.57	3.49	3.51	19.85

주) 표의 수치는 5점척도(①전혀 그렇지않다,⑤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이다.

- ✓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특히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진로상담, 진로교육의 중요성 확인)**
- ✓ 하지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 교육기회,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교사학생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 **하류층 학생들의 평가는 상류층 학생만큼 긍정적이지 않으며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보충교육기회와 다양한 예체능활동기회 등에 대하여 좀 더 부정적으로 평가**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사교육경험

▪ 고등학생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사교육기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표> 고등학생의 사교육 현황

구분		사교육경험자 비중(%)	사교육 과목(군) 수*	월평균 사교육비용 분포(%)				
				40만원이하	41~60만원	61~80만원	81~100만원	100만원이상
전체		63.3	1.31	50.0	19.18	12.26	8.49	10.06
성	- 남성	64.0	1.31	42.51	20.36	16.77	10.18	10.18
	- 여성	62.3	1.31	53.39	18.79	6.71	7.38	8.72
지역	- 서울	77.9	1.87	43.93	19.69	10.60	12.12	23.63
	-인천, 경기	61.9	1.30	46.31	15.79	15.79	11.57	19.52
	-영남권	68.7	1.30	51.13	26.13	5.68	5.68	11.36
	-기타 지역	50.0	.97	60.0	13.84	16.92	6.15	3.07
주관적 계층	- 상류층	72.4	1.53	30.23	11.62	20.93	18.60	18.60
	- 중간층	64.7	1.34	48.19	22.89	8.43	10.84	9.64
	- 하류층	58.4	1.20	60	16.36	14.54	0.90	7.27

✓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중과 월평균 100만원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의 비중이 **상류층에서 훨씬 더 높음**

✓ 응답자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다(14.5%)'가 아니라**

'가정형편상 사교육비용이 부담이 된다(33.3%)'는 점을 확인 가능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기회불평등 인식

▪ 한국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공평성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표> 한국의 사회적 성공과 기회 공평성에 대한 의식

구분		사회적 성공			사회적 기회 불공평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고위층의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나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내가 노력한 결과이다.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공평하다
합계		3.68	3.58	3.22	3.70
성	- 남성	3.62	3.54	3.15	3.67
	- 여성	3.75	3.63	3.30	3.73
주관적 계층	- 상류층	3.24	3.01	2.70	3.27
	- 중간층	3.55	3.54	3.14	3.59
	- 하류층	3.99	3.82	3.49	3.98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에 대한 5점척도(①매우 긍정,⑤매우 부정)의 평균값이다.

✓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모든 항목에서 **상류층<중산층<하류층**의 순서로 나타남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기회불평등 인식

▪ 기회불평등 심각성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표> 기회불평등 심각성 정도

구분		1)교육 기회 불평등	2)사회인맥 형성 기회 불평등	3)취업·승진 기회 불평등	4)문화활동 기회불평등	5)건강관리 기회 불평등	6)정보획득 기회 불평등	6개항목 합계
전체		4.45	4.78	5.06	4.30	4.00	4.25	26.83
성	- 남성	4.35	4.68	4.97	4.24	4.00	4.22	26.46
	- 여성	4.55	4.89	5.15	4.36	4.00	4.27	27.23
지역	- 서울	4.32	4.75	5.01	4.21	3.93	4.35	26.57
	- 인천, 경기	4.40	4.68	5.10	4.32	3.98	4.08	26.61
	- 영남권	4.45	4.75	5.01	4.25	3.96	4.29	26.67
	- 기타 지역	4.58	4.95	5.08	4.36	4.11	4.33	27.41
주관적 계층	- 상류층	4.15	4.40	4.64	4.09	3.88	4.0	25.16
	- 중간층	4.34	4.63	4.90	4.19	3.92	4.16	26.15
	- 하류층	4.69	5.11	5.40	4.50	4.15	4.44	28.29

주) 표의 수치는 각 문항의 7점척도(①전혀 심각하지않다..⑦매우 심각하다) 평균값이다.

✓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회불평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

–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 생각

✓ 하류층 고등학생들이 노동시장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맥형성 기회불평등도 심각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회적 관계의 계층별 격차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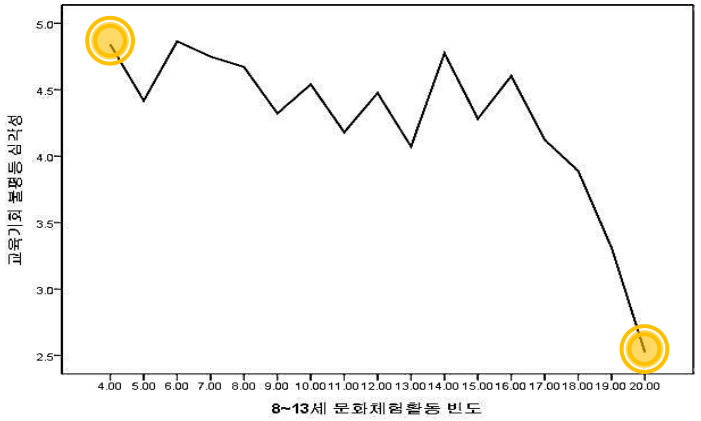
※이 조사자료의 상류층 고등학생 가운데 10.2%가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을 통하여' 아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으나, 하류층 학생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1.6%이다. 또한 대기업 임원, 법조계, 교수, 의사 등을 아는 경우도 사회계층별로 명확히 차이난다. 이러한 현실이 하류층 소속 고등학생들의 '인맥형성'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교육경험

▪ **어린시절의 문화체험 활동, 예체능 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 경험에서 지역간 계층 간 격차<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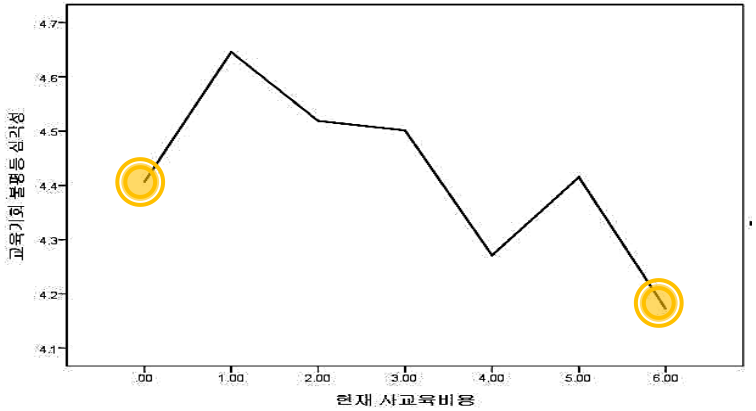
✓8~13세 시절에 음악·미술 여행 등 문화체험활동이 적었던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학생들에 비해 교육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

<그림1> 어린시절 문화체험·교육경험과 교육기회불평등 의식



▪ **사교육비를 적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많이 사용하는 학생에 비하여 교육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 <그림2>**

<그림2> 현재 사교육비용과 교육기회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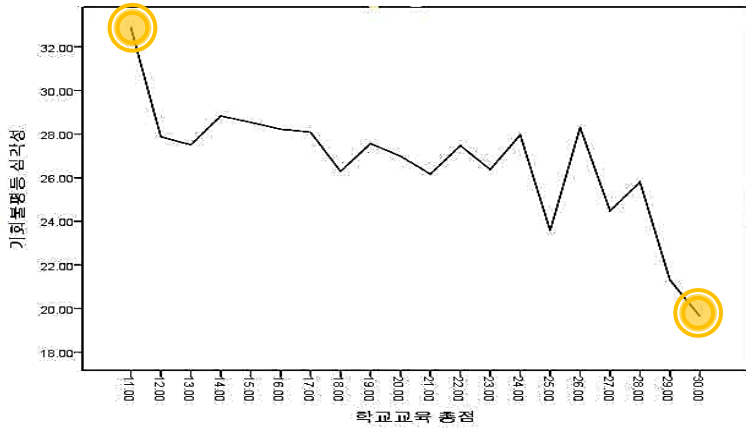


❍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교육경험

- **학교가 학생들에게 상담 혹은 진로지도 등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할수록 학생들의 사회적 기회불평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그림3>**

※**학교교육점수**는 '기초학력부족학생 보충교육실시, 학교교육시설이 좋음, 다양한 예체능 활동기회 제공,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음, 학생 고민 상담 실시, 진로선택에 도움' 이렇게 6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3> 현재 학교교육 경험과 사회적 기회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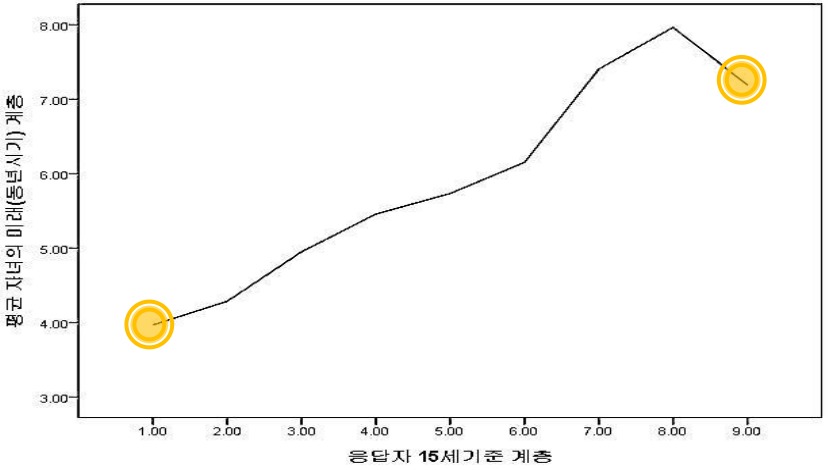


- **고등학생들이 기대하는 세대간 이동은 계층의 재생산 성격이 강함<그림4>**

✓현재 하류층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자녀세대들도 여전히 낮은 계층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

✓**청소년기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미래의 희망에 대한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음**

<그림4> 세대간 계층이동 기대감



❍ 청년기 기회불평등 연구

▪ **본 연구에서 청년은 20세~39세로 정의**

(최근 입직의 지연, 만혼, 만산 등 생애과정의 전환이 늦춰지고 있는 현실 반영)

▪ **기회불평등의 주요인으로 가족배경, 젠더, 노동시장 위치를 설정**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가 중학교3학년일 때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홀링스헤드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Socio-Economic Status Index, 이하 SES)를 측정

✓아버지가 생계부양자, 어머니가 가정주부였던 가구의 경우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아버지의 직업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와 교육수준에 부여한 위계적 점수의 가중합,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직업 점수와 교육 점수의 가중합의 평균으로 측정

- 응답자 본인의 성취에 기반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성장기에 어떠한 사회경제적 가족 배경속에서 사회화되었으며 기회의 제약을 경험하였는지를 측정

▪ **지역은 크게 서울지역 / 인천경기지역 / 영남지역 / 기타지역으로 구분**

❍ 청년실업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16년 7월 기준 20~24세(1만 6천명, 10.0%), 25~29세(1만 1천명, 5.3%)로 실업자 증가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15. 7		2016. 6		증감		증감률	2016. 7		증감		증감률
< 전 체 >	998	(3.7)	1,004	(3.6)	-46	(-0.3p)	-4.4	975	(3.5)	-24	(-0.2p)	-2.4
15 ~ 29세	416	(9.4)	467	(10.3)	18	(0.1p)	4.0	419	(9.2)	4	(-0.2p)	0.8
. 15 ~ 19세	49	(14.8)	25	(9.6)	-17	(-5.6p)	-41.3	25	(8.3)	-24	(-6.5p)	-48.6
. 20 ~ 24세	165	(10.1)	196	(11.8)	1	(-0.2p)	0.6	181	(11.1)	16	(1.0p)	10.0
. 25 ~ 29세	202	(8.1)	247	(9.4)	34	(0.8p)	16.0	213	(8.2)	11	(0.1p)	5.3
30 ~ 39세	173	(2.9)	181	(3.1)	-12	(-0.2p)	-6.2	184	(3.2)	11	(0.3p)	6.2
40 ~ 49세	166	(2.4)	131	(1.9)	-26	(-0.4p)	-16.8	135	(2.0)	-31	(-0.4p)	-18.7
50 ~ 59세	153	(2.5)	142	(2.3)	-28	(-0.4p)	-16.7	148	(2.4)	-5	(-0.1p)	-3.3
60세이상	91	(2.3)	84	(2.0)	3	(-0.1p)	3.2	89	(2.1)	-2	(-0.2p)	-2.3

※ ( )는 실업률

- ✓ '실업률 = 실업자/(취업자+실업자)' 이기 때문에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도 고용율에 포함되어 추계되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은것으로 추정**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 16년 7월 기준 구직단념자는 446천명으로 추정

(단위: 천명)

	2015. 7	2016.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구직단념자	487	431	414	420	419	446
(증감)	(34)	(3)	(19)	(6)	(-2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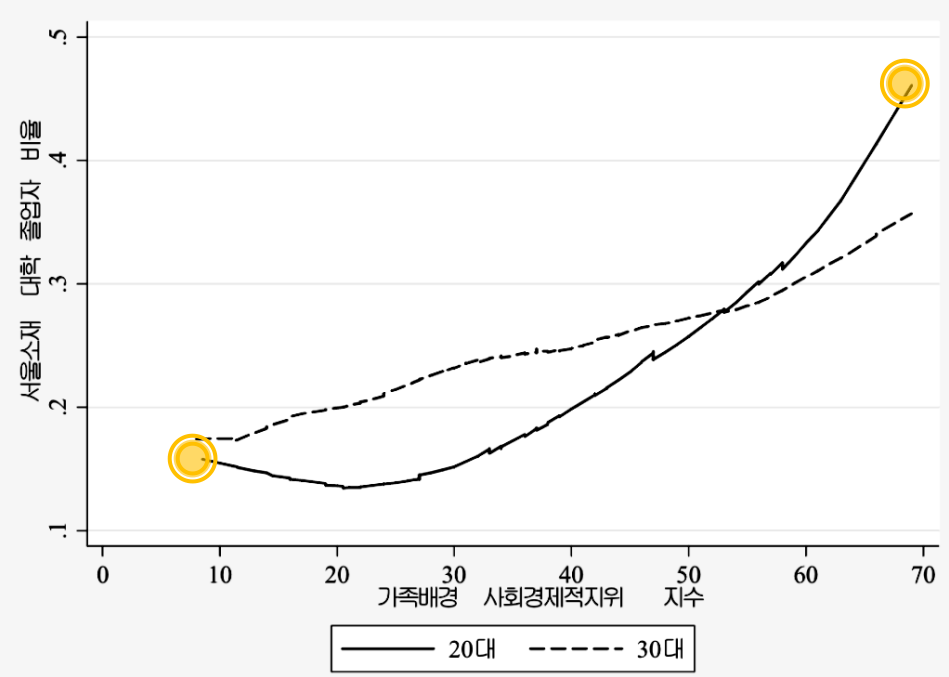
✓16년 3월기준으로 현재 **구직단념자 증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 같지만 구직단념자의 개념이 확대·변경되었으므로 비교하기 어려움

❍ 청년기 기회불평등 : 대학생활

- 응답자의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력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LOWESS 평활 곡선
- 사회경제적 지위지수가 높은 가족에서 자란 응답자일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급증

<그림5> 가족배경과 서울소재대학 졸업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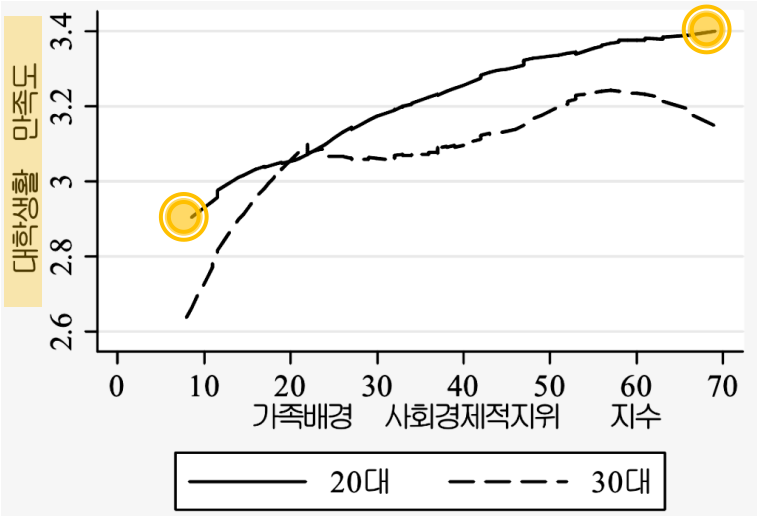
✓ 가족배경의 영향력은 대학에 진학하느냐 여부 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남

✓ 가족배경과 학벌의 연관성은 30대보다 20대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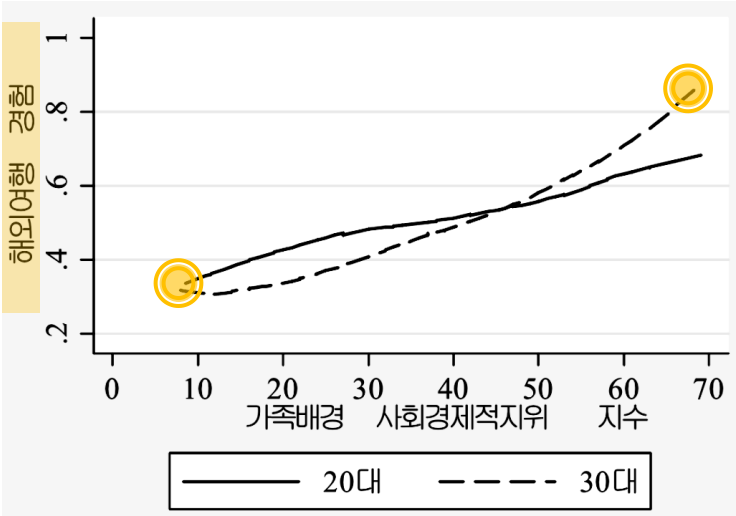
❍ 청년기 기회불평등 : 대학생활

-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년들이 더 높은 만족감을 표시
- 20대에 어학연수 등 해외여행을 경험해본 비율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한 선형관계

<그림6> 가족배경과 대학생활 만족도



<그림7> 가족배경과 해외여행 경험



✓ <그림6>은 대학생활에 만족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

✓ <그림7>은 20대에 외국을 여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없으면 0, 있으면 1, 더미변수로 측정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경제활동

▪ 청년층 사이에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의 차이가 큰 편

	남성			여성		
	취업률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취업률	구직율	비경제활동율
전체	63%	**20%**	16%	56%	21%	23%
고졸이하	62%	20%	18%	53%	14%	32%
전문대졸	40%	28%	32%	49%	27%	24%
대졸	81%	18%	1%	61%	21%	18%
대졸이상	80%	6%	14%	67%	10%	24%

✓ 특히 남성의 경우 대졸 및 대졸 이상의 고용율과 전문대졸의 고용율의 차이가 큰 것에 주목

▪ 청년층 내에서는 학력에 따른 취업의 질에 큰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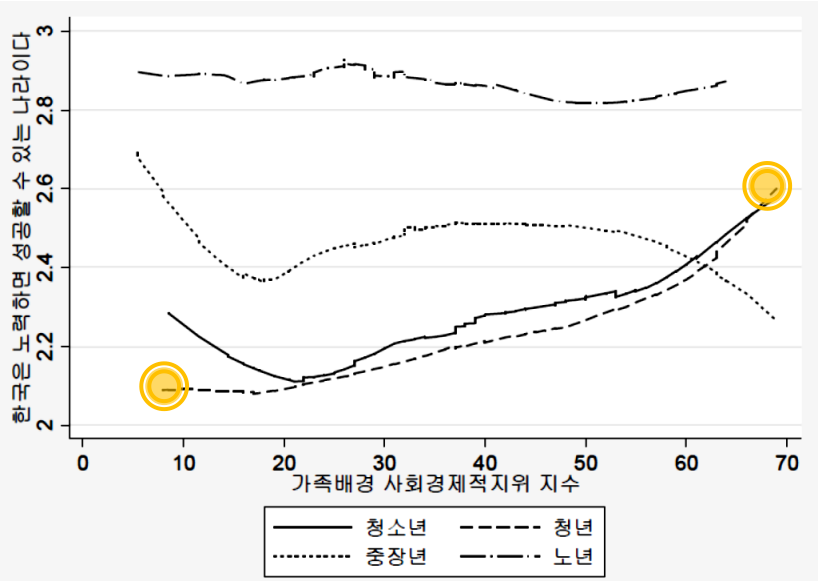
	남성		여성	
	정규직비율	평균소득	정규직비율	평균소득
고졸이하	64%	225	68%	184
전문대졸	68%	229	68%	188
대졸	82%	292	73%	223
대학원졸	71%	302	74%	258

✓ 남성의 경우 대졸이 고졸이하에 비해 1.3배 정도 소득이 높은 반면 여성은 그 비율이 1.2배 정도

✓ 여성의 경우 모든 학력 집단에서 남성보다 소득이 낮은것으로 나타남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기회공정성 인식

▪ **청년층은 기회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집단**



✓ **'한국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평가

✓ 가장 높은 가족 배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태에 있는 중년층보다도 한국의 기회공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기회공정성 인식

▪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족배경이 낮을수록 기회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표> 한국사회 기회공정성에 대한 세대, 성별, 가족배경, 학력, 지역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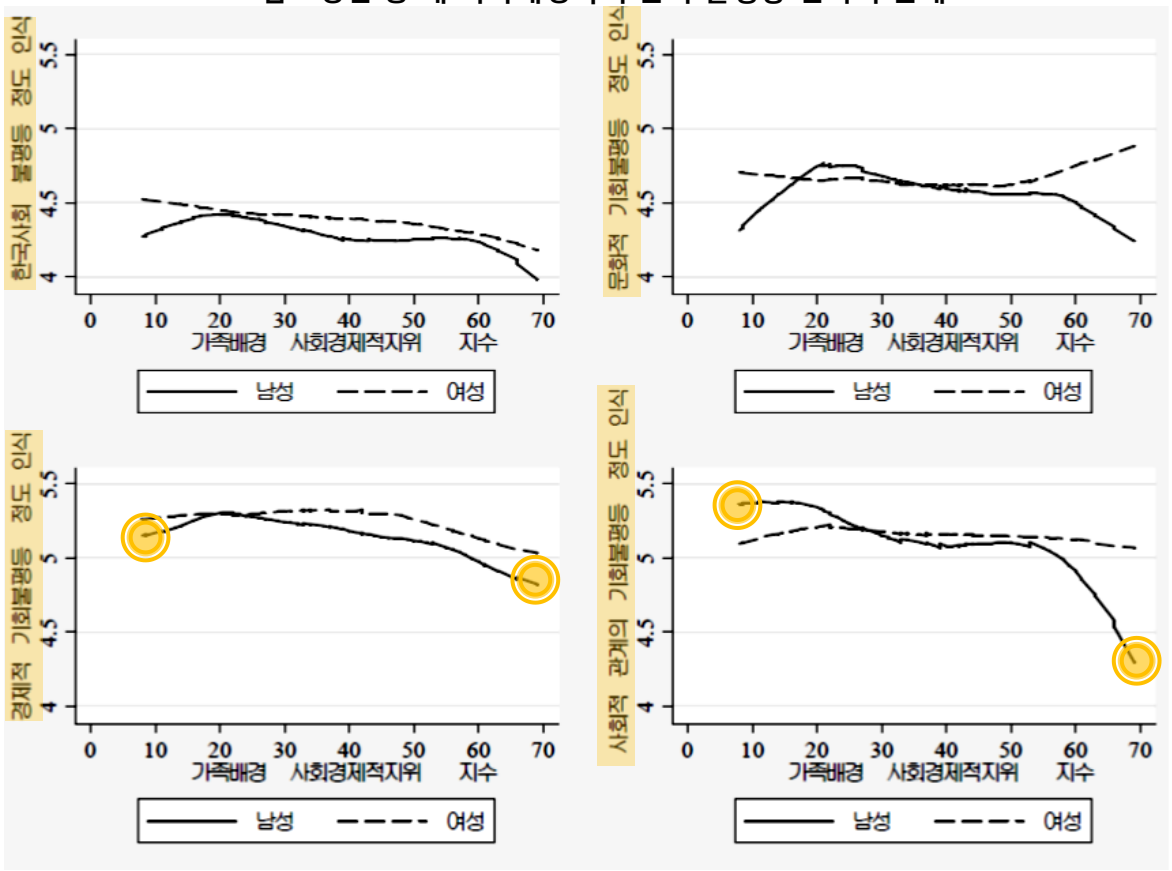
		청년기(20-30대)		장노년기(40대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배경	하층	2.08	2.02	2.47	2.59
	중간층	2.35	2.07	2.57	2.70
	상층	2.38	2.22	2.58	2.57
학력	고졸이하	2.37	2.12	2.62	2.70
	전문대졸	2.29	2.10	2.50	2.47
	대졸	2.26	2.07	2.39	2.50
	대졸이상	2.31	2.25	2.61	2.71
지역	서울	2.29	1.99	2.67	2.47
	인천경기	2.30	2.07	2.43	2.52
	영남권	2.33	2.15	2.59	2.74
	기타지역	2.25	2.23	2.55	2.72

✓ 한국사회의 기회공정성에 대한 가족배경의 영향력이 젊은 세대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내부의 객관적 기회구조의 불평등이 주관적 인식에서의 격차로 발견**되고 있음을 시사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기회공정성 인식

▪ 가족 배경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회공정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그림> 청년 층 내 가족배경과 주관적 불평등 인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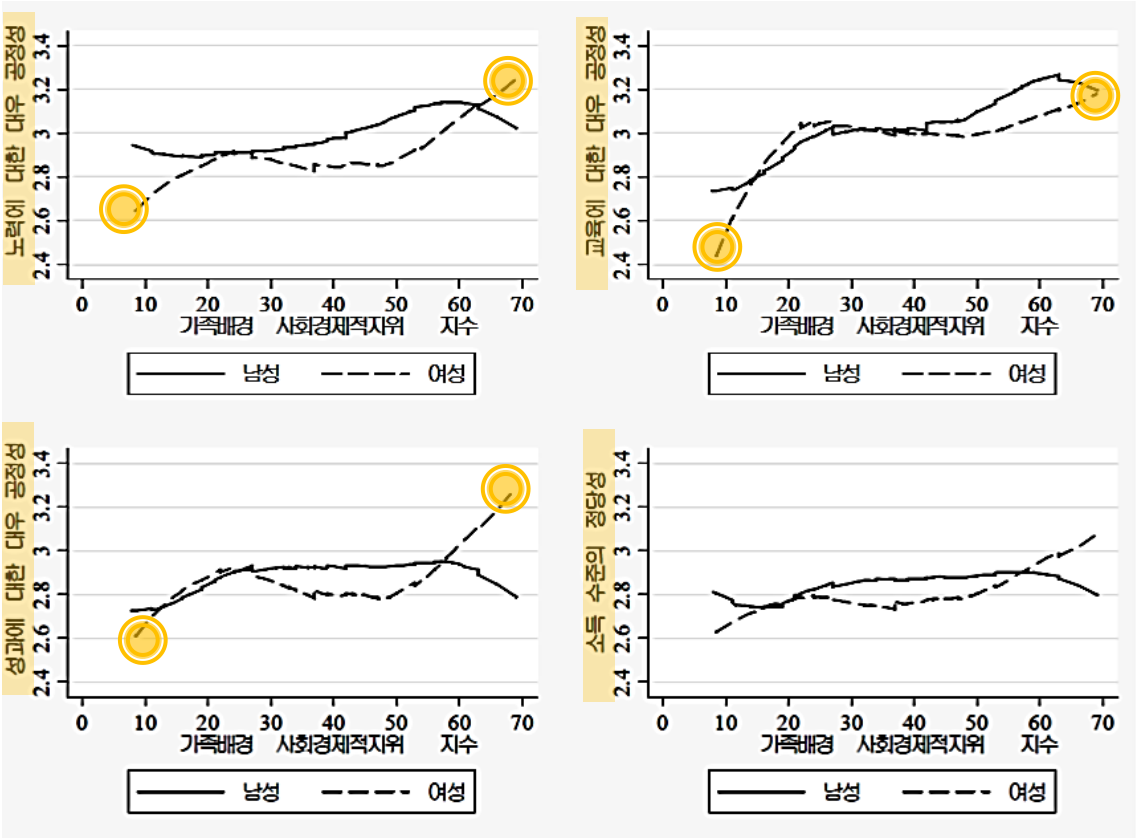
✓ 청년들은 특히 **취업과 진급**에서의 기회불평등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

✓ 모든 영역에서 **가족배경이 낮을수록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남

*기회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기회공정성 인식

▪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가족배경의 효과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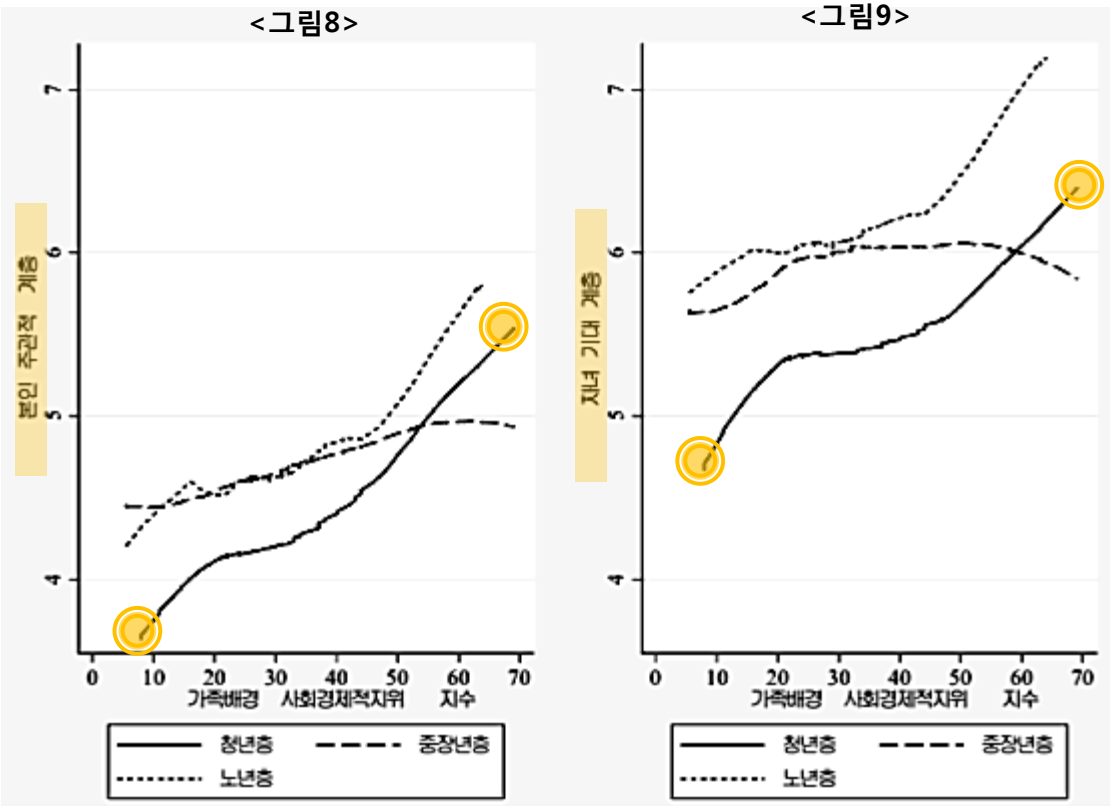
*대우 공정성과 본인의 현재 소득수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청년일수록 본인의 노력, 교육수준, 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대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가족배경에 따른 대우공정성 평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주목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배경에 따른 세대 간 사회이동 인식

<그림8>



<그림9>

✓<그림8>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자신의 주관적 계층의식간에 뚜렷한 선형적 정방향의 선형적 관계가 나타남

✓**청년층은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

✓<그림9>는 자녀의 사회적 계층에 대한 기대가 가족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

✓**현재 청년층이 세대 간 이동에 가장 비관적인 경향**

✓**청년층 내에서 가족배경에 따른 사회이동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증거**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 형성 기회

▪ 학력별로 보면 학력과 성별의 교호작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표> 미혼 청년층의 성별, 학력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고졸이하		20%	16%	11%	11%	11%	10%
전문대졸		22%	18%	16%	17%	20%	24%
대졸		9%	13%	11%	7%	15%	18%
대학원졸		3%	2%	5%	0%	16%	14%
전문대 이상	지방소재	16%	14%	12%	10%	15%	17%
	서울소재	10%	14%	12%	12%	20%	23%

✓ 남성 - 학력이 낮을수록 데이트 경험도 없고 결혼 의사, 자녀 의사도 낮은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 여성 - 데이트 경험을 제외하고는 결혼 의사, 자녀 의사에 있어 학력 간 **차이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음**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 형성 기회

▪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표> 미혼 청년층의 성별, 노동시장 지위별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남성			여성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데이트경험없음	결혼의사없음	자녀의사없음
전체평균	15	14	12	10	16	18
정규직	4	14	10	5	16	21
비정규직	10	14	10	5	16	21
자영업	3	9	12	8	33	25
구직중	27	24	21	27	26	34
비경활	35	19	21	7	6	9

✓ 남성 –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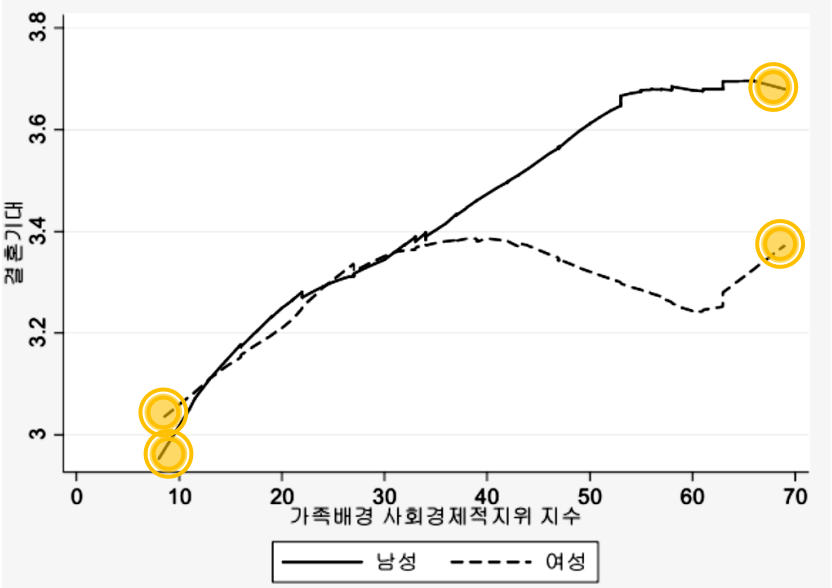
비정규직, 구직 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 결혼의사도 자녀의사도 없는 비율이 높음

✓ 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데이트 경험이나 결혼의사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

구직 중인 미혼 청년 여성들의 경우 남성과 달리 데이트 경험이 없는 비율, 결혼의사나 자녀 의사가 없는 비율이 낮은 편 특히 다른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여성들과 비교했을때 가장 낮은 편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 형성 기회

▪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결혼 의사



✓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 남성 –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에 대한 태도간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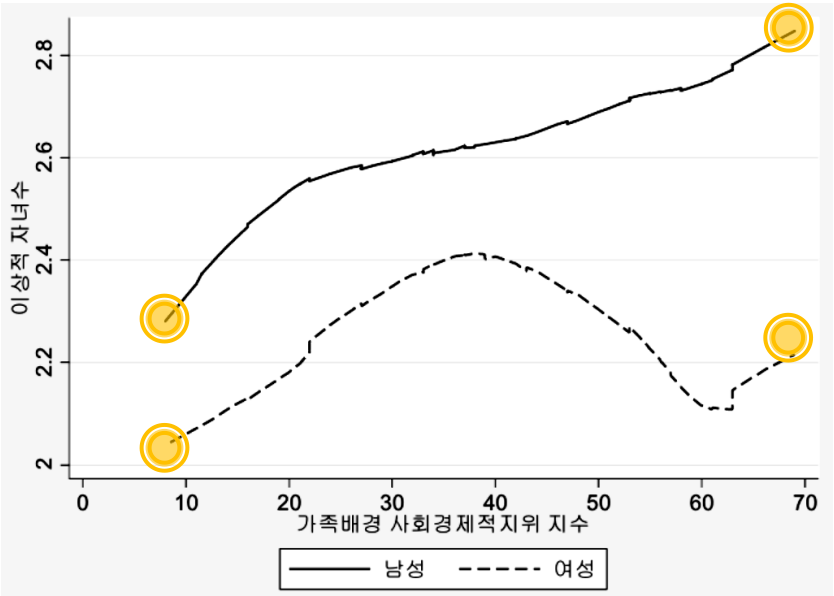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 여성 – **가족배경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비선형적인 관계**

가족배경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다가 상층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역U자형 패턴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 형성 기회

▪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자녀 의사



✓ **'앞으로 자녀를 몇 명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0명(무자녀)을 포함해 예상 자녀수를 응답한 문항측정

✓ 남성 –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에 대한 태도간에 거의 선형적인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 여성 – **가족배경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비선형적인 관계**

가족배경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다가 상층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역U자형 패턴

❍ 청년기 기회불평등 : 가족 형성 기회

▪ 대학서열체제와 결혼정보회사

✓ 한국의 대학서열체제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서울 사립대, 수도권대, 지방 국립대, 지방 사립대 순으로 형성

✓ **대학서열체제는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며 졸업생들의 사회적 권력에 의해 완성**

✓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학벌을 기준삼아 15등급으로 사람을 분류 혹은 점수화**

- 서울대 출신 남성에게는 25점, 연세대·고려대 출신에게는 20점을 배점.
  지방사립대를 나온 남성의 점수는 5점, 여성의 학벌 점수는 남성 기준보다 낮음

▪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 의사 등에서 부정적 태도 (N포 세대 확인)

▪ 젠더 격차

✓ 여성과 남성은 교육성취에서는 유사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는 큰 차이

✓ **젠더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로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지만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결혼, 출산 의사가 낮은것이 특징

진로교육의 역할과 향후 방향

셋째

P2.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 흙수저로서 성실히 도전하며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인

❍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신분상승 불가능

❍ 남들 보기 괜찮은 직장 아니면 부질 없는 짓(구직단념)

❍ 사회분노, 절망감, 무기력 팽배한 사회 인식 확산 (묻지마 폭행)

❍ "금수저- (높은) 사교육 – 좋은대학 – 좋은 직장 – 좋은 배우자와 결혼 – 부의 대물림 순환 구조" 인정

❍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취 가능한 사회로 전환

▪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학교교육 강화

✓청소년들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대학입시제도도 사교육기관이 아닌 **학교에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교육 강화와 균형 발전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개발을 위해 **교육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중심 진행 필요**

학교 진로지도 및 상담 기능 강화를 통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진로고민 대안 제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의 다양화, 교육관련 예산 확대 등 필요

✓낙후지역에 있는 학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특별예산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중요

▪ 개인의 진로목적에 적합한 학교생활이 입시제도의 큰 Key로 작용하는 변화 필요

✓가정배경이나 사교육경험에 상관없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진로목적에 적합한 활동과 학습한 결과를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제도 필요

❍ 구조적 미스매칭을 극복하기 위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강화

▪ 선진국형 조기 진로지도 즉, 직업훈련을 통한 조기 취업 풍토 정착 필요

✓스위스, 독일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조기 직업훈련 실시로 고등학교 졸업자 절반 이상이 곧바로 기업에 취업

✓학부모들과 학교가 인식을 바꾸고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 확충 필요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력

✓학력·직종·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경제적 차원의 안정과 교육기회의 보장이 동시에 필요

✓하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계층 불평등의 공고화가 우려**

✓진학 / 취업 / 소득 / 주택 / 가족형성 / 자녀교육 / 노후준비 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희망격차 나타남

▪청년층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해 낙관주의가 계층화되어 나타남

✓청년층 내에 **삼포현상이 계층화**되어 나타나며 객관적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

✓청년기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노력 절실히 필요

❍ 청년실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성찰과 반성

▪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와 창의안에서 자기 진로개발의 역량 함양**

✓자유가 있어야 열정이 있고 창의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것인데 현재의 대학교육은 공허한 이론학습만 강요

✓학력은 높으나 능력이 부족한 인력을 양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모험 부족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로 자기 진로개발을 위한 탐색, 도전, 실천 등의 역량과 의식개혁**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창의적 진로경로 대안 제시

▪ **고급 인재라고 판단되는 전문 인력을 최소화하고 마이스터고, 기술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구조 필요**

✓4년제 대학 진학 인원은 현실에 맞게 낮추기

✓정부와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 전문 인력으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재정 투입

P2.

❍ PES : 미래관점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화 필요

▪ **현재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단순 숙련을 쌓는 직업훈련에만 국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3단계로 나눠진 고용노동부 중심 프로그램

✓문화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연관있는 직업에 대한 지원보단 제조 소프트웨어등의 전통 산업에만 집중된 직업훈련

❍ work value 강조하는 조기부터의 진로교육 강화

- **전 생애과정에서 경험된 각기 다른 기회 불평등은 연쇄적인 상호 연결성 양상으로 나타나나,**
  - ✓청소년기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청년기는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의 불평등과 관련
  - ✓**현재의 결과 불평등은 과거 기회 불평등의 산물**이며, **현재 결과의 불평등은 또한 미래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회 불평등을 순수하게 분리시켜서 논의하기는 힘드나,**
- **하지만, 생애초기 기회 불평등 경험이 이후의 모든 기회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가치 교육을 확산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노력이 진로교육 안에서 강화**
  - ✓초기적인 기회 불평등이 이후의 기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

❍ 갖은 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가치 실현

-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명예(Noblesse)'만큼 사회적 '의무(Oblige)'를 다하는 가치 확산**
-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는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진로교육을 통하여 저학년 부터 work value, work ethic 강조**

초등-대학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에 포함

특정 시기의 선택과 지원에 초점을 둔 진로교육이 아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능동적(적극적) 창의적인 진로개척이 가능하도록 초점

건강한 Work value, Ethic,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쥬 가치 포함 및 강화

❍ 참고문헌

- 김낙년. (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경제연구소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 이성균. (2016). 청소년의 불평등 의식 : 고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기회불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동그라미재단 연구 리포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
- 통계청 보도자료. (2016). 2016년 7월 고용동향

참고 – 매경시사용어사전(노블리스오블리제) / 노블레스 오블리주(전국매일신문 20160901)

감사합니다